

레위기

선택받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BBS 성경해석학 · 성경은 소교재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제사법이나 율법의 모음으로만 읽으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율례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레위기에는 제사에 관한 규정이 나오다가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음식과 피부병과 집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어서 거룩, 절기, 안식년과 희년, 복과 징계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선택받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읽지 않으면 레위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의 출발점은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고,
출애굽을 통하여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불러내신 작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받은 그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의 흐름도 '말씀'을 중심으로 연결하여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1

창세기

그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2

출애굽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서 출애굽을 통하여 불러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3

레위기

선택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며, 하나님께 살아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산 경우
(순종과 불순종의 실제 역사)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경우
(반복되는 타락의 모습)



4

민수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광야에서의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여정



5

신명기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그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선포함

다음 세대에게 주는
말씀의 반복과 강조



6

역사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실제 삶의 기록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



7

시가서

말씀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드린 고백

하나님을 만나고 드린
신앙의 고백, 찬양, 기도



사사기

말씀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반복되는 타락과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
(‘사사기적 시대’의 시작)



8

선지서·예언서

말씀을 받은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시 하신 말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그리고 회복의 약속



“그러나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레위기 26:12)

레위기의 위치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 주어졌다면, 레위기에서는 선택받은 백성에게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씀이 주어진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크게 세 방향으로 흐른다.

첫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이다. 이것이 제사와 예배의 말씀이다.

둘째는 누가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도록 섬길 것인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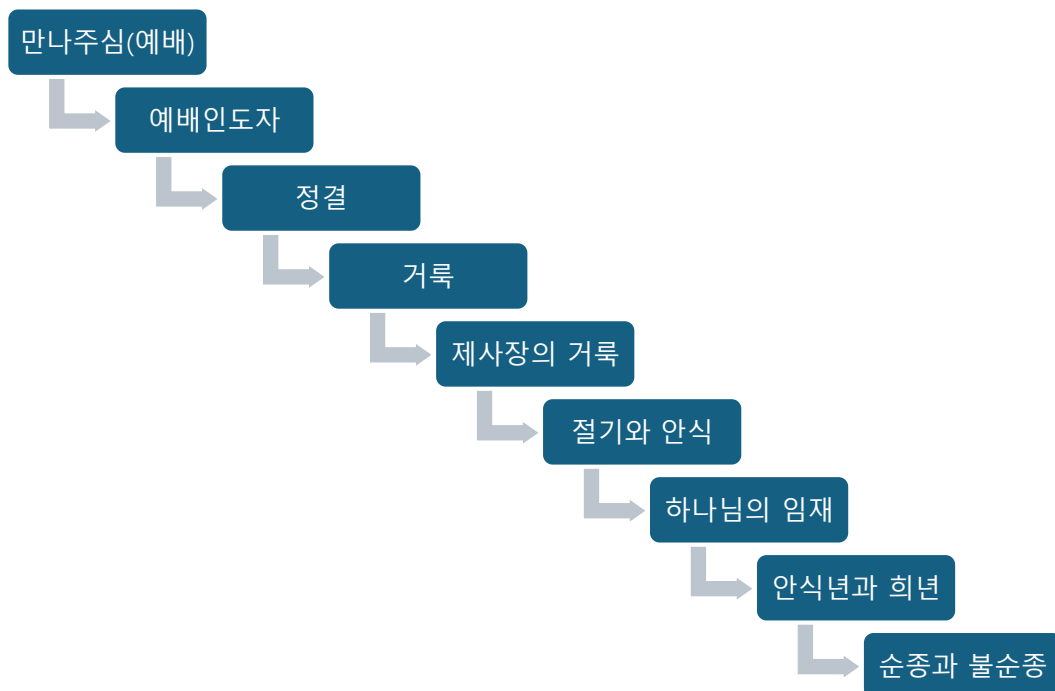
이것이 제사장과 예배인도자의 말씀이다.

셋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이다.

이것이 정결과 거룩, 시간과 절기, 땅과 소유, 순종과 불순종의 말씀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레위기는 서로 떨어진 법률의 모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라는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1장.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 제사와 예배

(레위기 1-7장)

말씀보기

레위기 1:2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레위기 1:4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이 그를 위하여 받아들여져 속죄가 이루어진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다섯 가지 제사를 설명한다. 각각의 제사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지만, 모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 준다.

-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제사였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전부를 드린다는 점에서 온전한 헌신을 나타낸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1장 9절)
번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버지께 내어 주신 예수님의 헌신을 가리킨다.
-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다.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하며 곡식을 빵은 인간의 수고를 상징한다.
소제는 특별한 종교 행위뿐 아니라 매일의 성실한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맡은 일을 정직하게 하고 가족을 돌보며 이웃을 섬기는 수고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다.
-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와 교제를 나타냈다.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일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었다.
같은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아 관계를 누리는 모습을 보여 준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하셨으며, 마지막 밤에는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다.

화목제가 보여 준 교제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

-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였다. 알면서 지은 죄뿐 아니라 부지중에, 곧 자신도 깨닫지 못한 채 범한 죄까지 다루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허물까지도 아시며,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을 마련하셨다.
-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였다. 용서를 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손해를 배상한 뒤 오분의 일을 더하여 갚아야 했다. 이는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용서와 책임 있는 회복을 통해 다시 세워져야 함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대신 담당하신 완전한 속건제가 되셨다.

이 다섯 제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

번제가 보여 주는 온전한 헌신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소제가 나타내는 향기로운 삶도 **예수님의 순종 안에서 완성되었다.**

화목제가 보여 주는 평화와 교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해졌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보여 주는 용서와 배상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1. 선택받은 백성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

레위기의 첫 말씀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서 시작한다. 이스라엘은 레위기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렇다면 선택받은 백성에게 필요한 다음 질문은 분명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인간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올 것인지, 어디에서 드릴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 고안한 종교행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에게 나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2. 제사의 근간과 번제

성경은 흔히 사용하는 '5대 제사'라는 분류 자체보다 제사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관심을 둔다.

특히 번제를 제사의 중요한 근간으로 이해한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번제의 구조 위에 속죄·속건·화목 등의 목적이 연결되고, 제물을 드리는 여러 방식이 더해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의 이름을 암기하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제물이 소라면 흠 없는 수컷을 가져오고, 회막 문으로 가져와 여호와 앞에 드리며,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제사장은 피와 제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 다룬다.

즉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3.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오늘날 예배의 의미를 생각할 때도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된다. 예배자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자신에게 나아올 방법을 말씀하셨다. 따라서 예배의 중심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는가?"가 먼저다.

성경이 회막 문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목적이 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와 방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배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다

→ 말씀대로 준비한다

→ 하나님께 나아간다

→ 하나님께 드린다

→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4. 실제적인 방법 —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

성경의 제사 설명에서 발견되는 실제적인 원리는 준비와 순종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가져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물을 준비한다.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져간다.

자신의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를 따른다.

따라서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시간에 늦지 않는 것보다 깊은 의미를 가진다.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에 자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강조되는 예배의 방향은 결국 인간에게서 하나님으로 향하지만,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이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서는 시간이다.

핵심

예배는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함께 토론하기

1.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신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 만드신 제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제도에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2.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다를 수 있다면, 예배자는 무엇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까?

오늘의 삶에 적용할 점

- 특별한 사역이나 큰 헌신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상의 성실함과 가족을 돌보는 수고와 이웃을 섬기는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1-7 장 소제)

2장.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사람 — 제사장과 예배인도자

(레위기 8-10장)

말씀보기

레위기 8:36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레위기 10:10-11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맡았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에게 복을 전하고,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선택된 아론의 가문이 맡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구별했다.

대제사장 아론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순금 패가 달렸다.

이는 제사장이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졌음을 나타냈다.

제사장들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는 피가 발렸다.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손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행하며,

발은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걷는 것을 의미했다.

제사장도 먼저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 했다. 사람은 자신의 자격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의 은혜로 구별된다.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여호와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위기 9장 23~24절)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는 표시 앞에서 백성은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그 반응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 주셨다는 기쁨이 함께 담겨 있었다.

반면 **레위기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 준다.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이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제사장과 제사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은혜도 드러낸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아론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아론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신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다.

이 땅에서 시험을 받으셨기에 배고픔과 외로움, 오해를 받는 아픔을 아신다.

그러므로 죄가 너무 크고 부족함이 많아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게 느껴질 때에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은 정죄와 심판만 있는 보좌가 아니라 긍휼과 도움을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다.

1. 예배의 방법과 함께 예배인도자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예배의 방법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예배를 섬길 사람을 세우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위임하셨으며, 어떻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셨다. 따라서 제사장 직분의 출발점 역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말씀이다.

2. 8장·9장·10장이 보여주는 대조

레위기 8-10장은 매우 분명한 흐름을 가진다.

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위임받는다.

9장에서 아론은 말씀대로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엎드린다.

그러나 10장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나타난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것을 드린다.

따라서 이 세 장을 연결하는 기준은 매우 분명하다. 명령하신 대로 행했는가, 명령하지 않은 것을 행했는가?

성경이 제사장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예배인도자는 말씀의 안내자이다

제사장의 역할은 제단 앞에서 제물을 처리하는 것만이 아니다.

레위기 10장은 제사장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예배인도자는 세 가지 역할을 가진다.

먼저 분별해야 한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지를 알아야 한다.

먼저 순종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

그리고 가르쳐야 한다.

백성이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도록 말씀을 알려주어야 한다.

4. 실제적인 방법 —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준다

성경에서 제사장은 단순한 종교행사의 진행자가 아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속죄의 일을 담당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백성을 섬기고 축복하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예배인도자의 삶과 예배인도는 분리될 수 없다. 말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삶에서는 거룩과 속됨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백성은 혼란을 겪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인도자에게 먼저 말씀을 듣고 → 말씀대로 살고 → 말씀을 가르치는 순서를 요구하신다.

결국 예배인도자의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백성이 예배인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핵심

예배인도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백성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사람이다.

함께 토론하기

1.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른 불' 자체보다 '명령하지 않으신 것'에 둔다면 오늘날 예배인도자에게 어떤 기준이 생기는가?
2. 예배인도자의 재능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충돌한다면 교회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가?

오늘의 삶에 적용할 점

- 죄가 너무 크고 부족함이 많아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게 느껴질 때에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10 장 정죄와 심판만 있는 보좌가 아니라 긍휼과 도움을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3장.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 — 정결과 부정

(레위기 11-15장)

말씀보기

레위기 11:44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5:31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음식, 피부병, 유출병 등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를 다룬다.

이 규례의 핵심은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는 데 있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 (레위기 11장 44절)

거룩함은 인간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날 음식 규례를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는 피부병에 관한 규례가 나온다.

부정하다고 판정된 사람은 진 밖에서 지내야 했지만, 치유된 뒤에는 정결 의식을 거쳐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서는 부정한 사람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다. 회복의 길을 남겨 두셨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까이하지 않던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병 환자에게 임하여 그를 깨끗하게 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교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와 더러움을 담당하시고 자신의 의로움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

사람이 감추고 싶은 약함과 부끄러운 영역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하며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1. 예배에서 일상으로

레위기 1-10장까지 읽고 나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제사와 제사장의 이야기가 끝나자 음식, 출산, 피부의 변화, 옷, 집, 몸의 유출과 같은 일상적인 문제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의 구조에서 이것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서는 예배시간에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들의 식탁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몸과 가정과 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2. 정결은 죄와 동일하지 않다

정결과 부정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모든 부정을 곧바로 개인의 도덕적 죄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다.

출산이나 정상적인 신체현상과 관련된 부정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위기의 정결 체계는 단순히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만을 구별하는 장치가 아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분별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러한 분별은 백성에게 거룩이 예배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게 한다.

3. 제사장은 일상의 상태를 살핀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중요하게 본다.

피부에 이상이 나타나면 제사장이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격리하고, 다시 살핀다.

집과 의복에 문제가 나타난 경우에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한다.

중요한 것은 백성이 자기 상태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 **살피고 → 구별하고 → 기다리고 →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이다.

4. 실제적인 방법 —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인다

성경에서는 정결 규례를 통하여 일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체득하게 된다고 본다.

먹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 몸의 상태도 말씀의 기준으로 살핀다.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기 판단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거룩과 부정의 경계를 의식한다.

이러한 반복을 통하여 선택받은 백성은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신다는 것은 간섭이 많다는 뜻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다.

핵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는다.

선택받은 백성은 일상의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한다.

함께 토론하기

1. 정결과 부정을 모두 죄와 동일하게 이해할 경우 레위기 11-15장을 읽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2.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배와 일상이 가장 쉽게 분리되는 영역은 무엇인가?

오늘의 삶에 적용할 점

- 완벽해진 뒤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 (11-15 장 거룩)

4 장. 선택받은 사람답게 사는 말씀 - 거룩

(레위기 17-20장)

말씀보기

레위기 19:2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0:26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내 것으로 삼았느니라.

1.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레위기의 거룩은 인간의 도덕적 수준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다.

자신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정체성에서 출발한다.

2. 거룩은 ‘구별된 삶’이다

성경에서 거룩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의 거룩은 매우 현실적이다.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무엇을 남겨 둘 것인가, 거짓말과 도둑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품삯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가 모두 거룩의 문제 안으로 들어온다.

3.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시스템으로 삼는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걷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시스템으로 삼는 것으로 설명한다.

말씀은 문제가 생겼을 때만 찾아보는 참고서가 아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되고, 돈을 사용하는 기준이 되고, 시간을 사용하는 기준이 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이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4. 실제적인 방법 — 구별을 반복해서 연습한다

거룩은 추상적인 마음가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 생활에서 계속 구별해야 한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이 관계는 말씀의 기준에 맞는가?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방식은 말씀에 맞는가?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말씀에 맞는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는 것이 거룩의 실제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거룩은 세상에서 무조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핵심

거룩은 선택받은 사람이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시스템으로 삼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의 형태인 것이다.

함께 토론하기

1. '거룩'을 세상과의 단절로 이해하는 것과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구별되어 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현재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기준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오늘의 삶에 적용할 점

- 거룩은 세상에서 무조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19 장 거룩)

5장. 말씀을 맡은 사람의 책임 — 제사장의 거룩

(레위기 21-22장)

말씀보기

레위기 21:6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레위기 22:31-32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너희는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1. 왜 제사장에게 더 엄격한가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레위기 21-22장에서는 제사장에게 더 엄격한 규례가 주어진다.

죽음과 관련된 문제, 결혼, 몸의 상태, 성물과 제물을 다루는 문제까지 일반 백성보다 더 세밀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 이유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2. 가까이 서는 만큼 책임도 커진다

하나님 가까이 서는 것은 특권이다.

그러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서는 사람에게는 특권만 커지는 것이 아니다.

책임도 커진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삶에서는 그 말씀을 무시한다면 백성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3. 제사장의 직무는 예배시간보다 넓다

성경은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를 집례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예배를 인도하고, 속죄의 일을 담당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백성을 섬기고 축복하고, 거룩과 속됨을 분별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제사장의 사역은 예배시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다. 백성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도 제사장의 중요한 책임이다.

4. 실제적인 방법 — 먼저 살고, 그 다음 가르친다

성경의 관점에서 말씀을 맡은 사람에게 가장 실제적인 원리는 순서이다

말씀을 듣는다

→ 자신에게 적용한다

→ 말씀대로 산다

→ 백성에게 가르친다

→ 백성이 말씀대로 살도록 돕는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그가 가르치는 말씀 사이에 간격이 생긴다.

따라서 말씀을 맡은 사람의 권위는 직분의 이름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 앞에 자신도 서 있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핵심

말씀을 맡은 사람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함께 토론하기

1. 하나님께 가까이 서는 사람에게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을 특권과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2. 말씀을 잘 가르치지만 삶이 그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지도자의 가르침을 공동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오늘의 삶에 적용할 점

-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 앞에 자신도 서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21 장 제사장)

6장. 시간을 다스리는 말씀 — 안식일과 절기

(레위기 23장)

말씀보기

레위기 23: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레위기 23:3 일곱째 날은 쉼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레위기 23장의 절기들은 사람이 만든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시간이었다. 이스라엘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반복해서 기억했다.

- **유월절**에는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유월절 어린양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을 가리킨다.

-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
이는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완전히 순결하신 분이다.

- **초실절**에는 처음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 **칠칠절 또는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50 일째 되는 날의 추수 감사 절기였다.
예수님의 승천 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으며, 사도행전 2 장은 이 사건을 기록한다.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무교절에는 장사 되셨으며,
초실절에는 부활하셨고,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임하셨다.
봄 절기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구원 사건 속에서 성취되었다.

•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절기였다.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소망과 연결된다.

• **속죄일**은 온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는 날이었다.

두 염소의 제사를 통해 죄의 용서와 제거를 보여 주며,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앞으로의 완성을 함께 바라보게 한다.

•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일을 기억하는 절기였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날을 바라보게 한다.

요한계시록 21 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한 동거가 그 완성을 보여 준다.

절기는 삶의 시간이며 기억의 시간이었다.

유월절에는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했고,

초막절에는 광야에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지신 일과 기도 응답하신 일을 기억하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

1.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만 다스리지 않는다.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유월절과 무교절, 첫 열매와 칠칠절, 나팔절과 대속죄일, 초막절을 정하셨다.

따라서 절기는 사람이 종교적인 필요에 따라 만든 행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백성에게 지키도록 하신 시간이다.

2. 절기는 기억을 위한 시간이다

선택받은 백성도 시간이 지나면 잊는다.

자신들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누가 먹이셨는지, 누가 보호하셨는지, 누구의 백성인지 잊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 말씀을 새겨 놓으셨다. 특정한 때가 돌아오면 일을 멈추고, 모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한다.

절기는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이다.

3. '이르라'는 말씀은 삶의 일정이 된다

부름 받은 백성들에게 이집트의 방법도 아니고, 가나안의 방법도 아닌 하나님의 영향력인 법을 주셨다.

레위기 23장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는 명령을 중요하게 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백성은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시간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4. 실제적인 방법 — 시간을 말씀 아래 둔다

절기 이해를 실제적인 원리로 정리하면 단순하다.

먼저 하나님의 시간을 확인하고, 그 시간에 자신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맞추어 다시 살아간다. 따라서 선택받은 사람은 자신의 일정표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일정표를 다시 만드는 사람이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행위이다.

핵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까지 다스리며, 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시간을 구별한 것이다.

함께 토론하기

1. 절기를 '행사'로 이해하는 것과 '말씀을 기억하도록 시간을 구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2. 우리의 실제 시간 사용을 보면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신지, 남는 시간에 계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의 삶에 적용할 점

-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일을 기억하며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든다. (23 장 유월절 초막절)
- 미래가 불확실해 보여도 구원의 시간표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23 장 절기)
- 쉼 없이 달려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믿는다. (23 장 절기는 쉼의 시간이며 기억의 시간)

7장.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 임재와 대속죄

(레위기 16장 중심)

말씀보기

레위기 16:2 아무 때나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들어오지 말라...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레위기 16:30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속죄일 규례**를 다룬다.

속죄일은 일 년에 단 하루, 일곱째 달 열흘에 지켜지는 가장 거룩한 날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죄를 돌아보았고, 평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던 지성소에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

지성소에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대제사장도 피 없이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먼저 자신과 가족의 죄를 위해 수송아지를 잡아 속죄제를 드린 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는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동시에 보여 준다.

속죄일에는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하여 제비를 뽑았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렸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되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려졌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는 대제사장이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허물을 고백했다. 백성의 죄가 염소의 머리 위에 옮겨진 뒤, 그 염소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져 광야로 보내졌다.

“아론은 두 손으로 그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레위기 16장 21~22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점점 멀어져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죄가 자신들에게서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보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두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속죄 제물로 죽은 염소는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여 준다.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옮기신 예수님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였고, 우리의 죄를 다시 정죄의 근거가 되지 않을 곳으로 옮기셨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

과거의 죄가 반복해서 떠올라 괴로울 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멀리 옮기셨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정죄의 근거로 삼지 않으시는 죄를 붙들고 계속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화려한 예복이 아니라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는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아론은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순간, 속죄일이 가리키던 구원의 의미가 완성되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막힌 담을 허무신 사건이었다.

이제 특별한 인간 중재자나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1. 레위기의 모든 규례 뒤에는 '임재'가 있다

왜 이렇게 많은 제사와 정결 규례가 필요한가?

레위기의 모든 말씀 뒤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면 정결과 부정의 경계를 이렇게 세밀하게 다룰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죄와 부정의 문제를 그냥 둘 수 없다.

2.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대속죄일에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은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강조한다.

지성소에는 정해진 때에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친밀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

3. 속죄와 정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속죄와 정결의 최종 목적은 의식을 완성하는 데 있지 않다.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죄와 부정을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할 방법을 알려주셨다.

제사와 제사장, 정결과 대속죄일은 서로 다른 주제가 아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시기 위한 하나의 말씀 안에 있다.

4. 실제적인 방법 — 임재를 말씀과 분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를 단순히 감정적인 경험으로만 이해하면 레위기의 흐름을 놓치게 된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동시에 그분의 말씀도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다룰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의 흐름에서는 임재를 원한다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듣는다
- 속죄와 정결의 말씀을 따른다
- 하나님께 나아간다
-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구조가 형성된다.

5. 결국은 속죄의 '대속'

인간의 거룩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죄성과 죄과를 통한(또는 바알브올) 타락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불순종이나 불경건에도 불구하고 속죄의 방법을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죄된 우리를 거룩하게 선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핵심

레위기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다.

함께 토론하기

1. 레위기의 중심을 '죄를 용서받는 방법'으로 보는 것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으로 보는 것은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2. 하나님의 임재는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 레위기의 관점에서 가능한가?

오늘의 삶에 적용할 점

- 과거의 죄가 반복해서 떠오를 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멀리 옮기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더 이상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다. (16 장 아사셀을 위한 염소)
(히 10:17)

8장. 소유까지 다스리는 말씀 — 안식년과 희년

(레위기 25장)

말씀보기

레위기 25:10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레위기 25:23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레위기 25장에는 희년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다.

7년을 7번 센 뒤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였다.

희년에는 팔렸던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종이 된 사람은 자유를 얻어 가족에게 돌아갔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레위기 25장 10절)

희년의 나팔 소리는 종에게 자유를, 빚진 사람에게 해방을, 잃어버린 땅을 가진 사람에게 회복을 알렸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고 선포하셨다.

희년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영적 자유를 보여 준다.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은 자유를 얻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회복받는다.

죄책감과 두려움, 과거의 상처에 묶인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하신다

1. 말씀은 재산과 땅에도 들어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와 몸과 시간에서 멈추지 않는다.

땅과 재산과 경제생활까지 들어온다. 7일마다 사람이 쉬는 안식일이 있다면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이 있다. 그

리고 일곱 번의 안식년 주기가 지나면 희년이 선포된다. 따라서 레위기의 거룩은 예배당의 거룩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제생활도 거룩의 영역이다.

2. “땅은 내 것이다”

희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권 선언이다.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성경은 이를 매우 실제적으로 관리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땅의 궁극적인 주인이 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땅을 팔았더라도 값을 마련하여 무르기를 원한다면 돌려주어야 하고, 희년이 되면 기업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이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3. 희년은 다시 시작하게 한다

희년에는 자유가 선포된다.

경제적인 이유로 종이 된 사람에게도 회복의 길이 열리고, 잃어버린 기업이 원래 가족에게 돌아간다.

이것은 선택받은 공동체 안에서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다시 세팅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없게 되고 ‘자유’를 줄 수 밖에 없게 된다.

4. 실제적인 방법 —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로 산다

성경의 안식년과 희년을 실제적인 삶의 원리로 옮기면 질문이 달라진다.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어떻게 관리하라고 맡기셨는가?”를 묻게 된다.

땅을 대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돈을 대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또한 안식년에는 실제로 땅을 쉬게 해야 했다.

이것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실제 행동으로 순종하는 훈련이었다.

핵심

선택받은 사람은 자신의 소유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용한다.

함께 토론하기

1. “땅은 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오늘날 우리가 가진 돈과 재산에 적용한다면 ‘소유자’와 ‘관리자’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2. 희년의 제도를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 희년에 담긴 하나님의 소유권과 회복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오늘의 삶에 적용할 점

- 죄책감과 두려움과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선포된 희년의 자유를 받아들인다. (25 장 희년 예수님 안에서 영적자유)

9장. 말씀에 대한 마지막 선택 — 순종과 불순종

(레위기 26-27장)

말씀보기

레위기 26:3-4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레위기 26:11-12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레위기 26장은 순종할 때 임하는 복과 불순종할 때 따르는 저주를 선포한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을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레위기 26장 3~4절)

그러나 가장 큰 복은 물질적 풍요나 안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하시는 것이 복의 중심이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레위기 26장 12절)

불순종에 대한 경고는 백성을 파멸시키기 위한 선언이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돌이킴을 위한 사랑이 담겨 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백성이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들이 자기 죄와 조상의 죄를 자복하면, 내가 그들의 할레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을 인정하면 내가 야곱과 함께한 내 언약을 기억하겠노라.” (레위기 26장 40~42절)

아무리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더라도 진실하게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회복의 길이 열려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

레위기 27장의 서원 규례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린 헌신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억지로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한 번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기억하고 지키기를 원하신다.

신앙의 헌신은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응답이어야 한다.

1. 레위기의 마지막 질문

레위기의 마지막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말씀하셨고, 누가 예배를 섬길 것인지 말씀하셨다.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구별할지, 땅과 재산을 어떻게 다룰지까지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이다.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전체의 결론과 같다.

2. 복의 중심은 하나님 자신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비와 수확, 평화와 안전의 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것이 복의 최종 목적은 아니다.

레위기 26장의 가장 중요한 선언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행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레위기의 복을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시는 것이다.

3. 불순종은 결국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징계 역시 단순한 불행의 목록이 아니다.

성경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문제를 예로 들면서 이것이 단순히 농사를 쉬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계산을 더 신뢰하여 계속 경작한다면 결국 문제의 중심은 농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불순종은 행동 하나의 실패보다 깊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삶이다.

4. 실제적인 방법 — 깨닫고, 자복하고, 돌아온다

그러나 레위기 26장은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돌아오는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한다. 먼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 자신의 죄와 조상의 죄를 자복한다.

→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회복의 과정이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환경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디에서 떠났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따라서 레위기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에게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길을 보여준다.

5. 레위기의 시작과 끝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로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끝난다.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선택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택받은 백성에게 묻는다.

“너희는 이 말씀대로 살겠느냐?”

핵심

레위기는 선택받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선택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주신 말씀이다.

함께 토론하기

1.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레위기 26장의 말씀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순종하는 기복적인 신앙은 무엇이 다른가?
2.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음을 발견했을 때 성경은이 제시하는 '깨달음 → 자복 → 돌아감'의 과정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의 삶에 적용할 점

-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느낄 때 죄를 자복하고 즉시 돌아간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26:40-42 회복의 길)
- 하나님께 드린 약속과 헌신을 기억하되, 억지 의무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섬긴다.
(27 장 서원 규례)

■ 레위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레위기 전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시려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죄를 제거하고 화해하기를 원하신다.

죄를 알면서 지은 경우뿐 아니라 깨닫지 못한 허물까지도 다루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받아 주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종과 빚진 자의 상태에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자유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는 함께하시고, 어둠 속에서는 빛으로 인도하시며,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쉽도 허락하신다.

끊임없이 일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멈추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구원의 역사와 개인의 삶을 모두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며 정하신 때에 완성하신다.

■ 레위기를 한 문장으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니,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하리라”

선택받은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1 말씀을 주신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그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



2 말씀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불러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출애굽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3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예배

레위기 1-7장
제사와 예배



4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인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먼저 순종하며,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도록 돕는 제사장

레위기 8-10장
제사장과 예배인도자



5 일상의 정결과 구별

먹는 것과 몸과 가정과 일상의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는 삶

레위기 11-15장
정결과 부정



6 말씀을 삶의 시스템으로 삼는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구별되어 살아감

레위기 17-20장
거룩



7 시간까지 하나님께 속함

안식일과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감

레위기 23장
안식일과 절기



8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제사와 정결과 모든 규례가 주어짐

레위기 16장 중심
임재와 대속죄



9 땅과 소유까지 하나님께 속함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소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리함

레위기 25장
안식년과 희년



10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씀을 따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며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정계가 있음

레위기 26-27장
순종과 불순종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레위기)

